

칼빈主義와 說教

— Andreas Gerhard와 John Calvin을 中心하여 —

鄭 聖 久

基督敎는 처음부터 說敎를 중요시하는 宗教이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初代 敎父들이 그러하였다. 그래서 基督敎 초기에는 학식과 웅변을 겸한 大說敎家²⁾가 많았다. 그러나 一般 敎會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많은 說敎가 行하여졌던 것은 아니고 宗教改革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많은 설교가 行하여졌다. 宗教改革 전에는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敎회의 傳承 속에 묶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되지 못하고 하찮은 이야기거리나 “宗教倫理的 問題를 取扱”(de behandeling van enkele religieus-ethische problemen)³⁾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에 反해서 改革者의 전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聖經을 바로 가르치고 說敎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⁴⁾ 改革者들의 설교는 언제나 성경이 기초가 되고 그것을 解說하는데 역점을 두었던 것

1) 이 제목은 본 대학 77학년도 2학기 초의 특별 강연의 제목이며, 이 논문은 그때 행한 강연 요지이다(1977. 8. 26일 강연). “칼빈주의와 설교”에 대한 문제는 일찍이 1931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행한 스토른 강연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Calvinism and Preaching”이란 제목으로 The Evangelical Quaterly, Vol. N. (1932), p. 244에서 활자화 되었다.
2) 크리소스톰(Chrisostom)은 본래 헬라어로 “황금 입”이란 말로서 별명이 본명으로 된 것인데 그만큼 그는 대 설교자였음을 볼 수 있다.
3) Ph. J. Huijser; *Het Exmpel in de prediking* (Groningen 1951), p. 119.
4) *Ibid.*, pp. 120-128.

이다. 그 후에 설교는 매우 理解的이 되어 버렸고 설교의 일은 적어갔다. 그러나 18世紀에 와서 다시 信佛의 復興이 說敎를 中心하여 일어났는데 예컨대 윙필드(Whitfield)나 웨슬리(Wesley)를 대표로 들 수 있다. 또한 19世紀에는 스펜진(Spergeon) 같은 大說敎家들이 일어났다. 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에 대한 信實한 중들의 說敎를 통하여 役事한다. 칼빈主義者들은 說敎者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안다. 또한 설교를 聽하여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人間은 예배 때 하나님과 對面하지 못하면 어떤 예배도 참된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항상 참된 설교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世上倫理, 社會改革, 文字的 批評 등의 설교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秘密을 알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靈魂의 痛苦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說敎者들은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설교가 힘들어지고 두려워진다고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칼빈主義와 說敎란 主題 아래서 “칼빈주의적 說敎”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 설교로써 宗教改革 당시의 說敎理論家인 안드레아스 겔하르트(Andreas Gerhard)와 요한 칼빈을 중심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어떻게 說敎하는가의 方法이나 技術的인 문제보다 原理的인 방법을 생각코자 한다.

1. Andreas Gerhard의 칼빈主義的 說敎理論

안드레아스 겔하르트는 흔히 히페리우스(Hyperius)로 더 잘 알려진 사람으로 그의 출생지의 地名인 Ypres를 따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그는 일찍이 11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⁵⁾ 그후 그는 당시의 유행한 이 大學 저 大學 등으로 다니면서 넓은 人本主義 學問을 追求하였다. 그는 파리의 유명한 Trilingual College of Francis the First

5) David Fuller, “전리물 위한 영송물”(Philadelphia, 1961)에 보면 각 세대에 걸친 가장 우수한 작품 32권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6권은 칼빈주의자였다. James Margon, “과거의 대복음 설교가”(Nashville, 1961)에서 24명 중 20명은 칼빈주의자였다. 이로 보건대 설교가로 하여금 복음적 열정의 불을 붙여주는 것은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자였다.
6) George Johnson, Calvinism and Preaching, *The Evangelical Quaterly*, Vol. IV. (1932), p. 245.

에의 學生으로 在學할 때에 福音을 傳해져 되었고 졸업하자마자 직접 改革神學을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하여 改革의 本山지로 改革主義 지도자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改革信仰은 그의 고향 Ypres에서 강한 반대를 받아 교사직을 박탈 당하고 英國으로 쫓겨갔다. 그러는 동안 옥스포드와 캠브릿지에서 4년간을 보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改革主義者들에 대한 박박이 심해지자 다시 大陸으로 건너왔다. 1541년 6월 15일 그는 敎師職을 다시 얻기 위하여 마틴 부처(Martin Butzer)⁸⁾에게 추천서를 얻어서 神學강의를 맡게 되었고 1564년 그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하였다. 그에 대한 자로들은 그가 정직하고 충실하며 該博한 知識을 소유한 자로서 훌륭한 敎師이며, 반면 그의 純潔하고 모범적인 생활은 그의 세대의 마부르크(Marburg)에서 靈的인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물론 겔하르트가 改革者들 중에서 처음으로 說敎理論을 구상한 사람인 아니었지만 그의 이론이 說敎問題에 대한 칼빈主義的인 견해를 구체화 시킨 것으로는 처음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⁹⁾ 겔하르트가 그의 저서를 발행하기 18년 전인 1535년 에라스무스(Erasmus)¹⁰⁾가 Ecclesiastes를 발행하였는데 그의 冊에서는 說敎者의 임무가 敎會的인 見解가 아니고 人本主義的인 見解에서 理解되었다. 이에 반해서 안드레아스 겔하르트는 聖經的인 입장에서 說敎를 구상하였다. 그는 마틴 부처(M. Butzer)에 依해서 影響을 받았던 것처럼 理論과 방법을 일치시키므로 眞實하고 確信있는 칼빈主義者로 여김을 받았다. 그의 방법은 먼저 제자들에게 본문 말씀을 주고 자기와 학우들 앞에서 설교를 하도록 한 다음 內容과 構成, 음성의 사용, 제스처 등을 評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칼빈주의적 說敎理論을 그의 저서 가운데서 발견하고자 한다.¹¹⁾

겔하르트의 저서는 1553년은 “De Formandis Concionibus Sacris”였는

7) *Ibid.*, p. 246.

8) 1491—1551, 스투라스부르크의 개혁자, 15세기 도미니카 교단에 입단하고 Heiderburg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 철학, 수사학을 공부하였다. 루터와 칼빈파를 합동하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그는 Zwingli에 가담하게 되었다.

9) G. Johnson, *op. cit.*, p. 246.

10) 1466—1536 본명은 Gerrit Gerritszoon이며 화란의 Rotterdam 출신의 인문주의 사상가.

11) 겔하르트(또는 Hyperius)에 대한 이 설교이론의 내용은 C. Chr. Achelis의 논문 Andreas Hyperius, Ein Beitrag Zu Seiner Charakteristik (1895)을 볼 것.

데 그 주제로 쓴 양으로 “Popular Interpretation of Sacred Scripture” (성경의 평이한 해석)란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겔하르트는 이 冊의 序論에서 說敎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必需的이고 充分한 功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의 講義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제 1권은 一般說敎, 제 2권은 特別說敎였다. 1권의 내용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즉 聖經은 말씀의 使役者들을 높이 칭찬하며 하나님의 同役者로 여긴다. 만일 설교자가 가치있게 하나님께서 使命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로 설교자는 무엇보다 神學知識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 아무리 말을 잘하거나 기술이 있다 해도 神學知識(聖經知識도 포함해서)이 없다면 바로고 착신있는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說敎者에게는 純潔한 道德性이 요구된다. 아무리 많은 神學的 知識이 있다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지 못하면 그는 靈魂을 살리는 능력있는 설교자는 되지 못한다. 세째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¹²⁾ 이것은 說敎者는 어느 정도의 웅변술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神學知識도” 많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도 가르치는 능력이 없으면 좋은 說敎者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說敎의 目的은 하나님과 인간을 和睦(verzoening)시키며 죄인을 救援하는 것에서 떠나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즉 說敎者는 설교 내용이 聖經에서 나오고 청중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는 설교의 다섯 가지 役割을 聖經에서 찾고 있다. 즉 딤후 3:16의 ① 敎訓 ② 責備 ③ 마르계 4의 ④ 義로 敎育 그리고 롬 15:4의 ⑤ 聖經의 安慰로 所望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겔하르트는 說敎의 준비 계단으로 첫째는 聖經本文을 읽고 깊이 연구할 것, 둘째는 그 說敎에 하나님의 能力이 役事하도록 祈禱로 준비하고, 세째는 확신있게 講論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겔하르트의 “성경의 평이한 해석”의 제 2권은 1권에서 말한 說敎의 다섯 가지 分類를 자세히 말하고 있다.

(1) 그는 說敎와 辯論을 뚜렷이 區分하였다. 설교의 장소는 敎會이고, 聖經을 가지고 신양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辯論은 法廷에서 法官들에게나 배심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2) 그는 먼저 뚜렷한 福音的 입장에서 설교에 대한 이론을 구체화 하

12) G. Johnson, *op. cit.*, p. 247.

있다.

(3) 그는 모든 說教은 오직 聖經에만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聖經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說教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 가치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4) 그는 說教의 目的이 人間을 하나님과 和睦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說教은 청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救援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그는 說教에서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① 讀書, 讀經(lectio) ② 祈禱(invocatio) ③ 計劃(exordium) ④ 命題(propositio) ⑤ 區分(divisio) ⑥ 保證(confirmatio) ⑦ 辯駁(confutatio) ⑧ 結論(conclusio) 등이 있으나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¹³⁾

이런 Andreas Gerhard의 저서는 판을 거듭했고, 그 내용은 수 많은 說教관에 참고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가 쓴 글에 관심을 가진 자에게는 전통적인 指針書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그 당시의 神學者들은 그의 說教理論을 계승하지도 못했고 現代도 新敎 說教들은 대체로 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說教에 관한 칼빈主義 立場을 明白히 가르친 것은 사실이다. 그는 說教가 죄인들을 악한 길에서 회개시키고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聖靈의 도구로서 정의하였다. 과연 Andreas Gerhard는 16世紀에 있어서 칼빈主義 說教理論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II. 요한 칼빈(John Calvin)과 說教

칼빈이 說教者로서 활동은 스트라스버그(Strasburg)에서의 3년간(1538—1541)과 다시 제네바(Geneva)에 돌아와서 약 20여년간이었다.¹⁴⁾

13) 說教의 8가지 요소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수사학의 3가지 요소를 버렸다. 즉 genus demonstrativum(논증의 방법), genus deliberativum(토의의 방법), genus giudiciale(판단의 방법)은 說教의 법에서 제외하였다. G. Johnson, *op. cit.*, p. 248.

14) George Johnson은 칼빈의 진정한 說教 기간을 1549년 여름부터 1560년 가을까지라고 하였다. 다음의 자료는 Erwin Mülhaupt의 Die predigt Calvins, ihre Geschichte, ihre Form und ihre religiösen gaundgedanken(1931)을 참고할 것. 이것은 칼빈의 작품집인 Corpus Reformatorum을 기초로 한 것이다. 칼빈의 說教 전집으로 화란어로 *Het Gepredikte woord, preeken van Johannes Calvijn 1—V* (T. Wever N.V.—Francker)이 있다.

오늘날 多幸히도 이 기간 동안에 行하여진 많은 칼빈의 說教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고장에서 宗教的인 逼迫을 받아 제네바로 피난은 불탄서 사람 Denis Raguenier의 德으로 오늘날까지 남게 되었다. 그는 속기사로 조그마한 일들을 받아가면서 칼빈의 說教을 거의 그대로 써 내려갔다.¹⁵⁾ 1549—1560년 11월 3일까지의 說教을 속기하였다. 더러 빠지기도 하였으나 보존된 說教가 2,000여 편에 달하며, 칼빈 사망 후 宗教改革著作集(Corpus Reformatorum)이 편집될 때 구약이 571편 신약이 297편 모두 868편이 수록되었다고 한다. 칼빈의 위대한 說教은 Denis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文書化되어 오늘날에도 귀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칼빈은 主日에 두 번의 說教을 했다. 한 번은 새벽이고¹⁶⁾ 다음은 오후 3시에 있었다. 평일에도 月, 水, 金요일에 說教을 하였다. 說教時間은 약 한 시간 정도였는데 그 안에는 기도와 찬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많은 비교적 빠른 편이었고, 칼빈의 說教은 연속적 聖經講解인데 깊은 명상과 기도로 준비하고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說教을 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노트하지 않고 놀라운 暗記力을 발휘해서 의도했던 생각을 傳하곤 하였다. 칼빈은 說教壇에서 하나님의 말씀 全體를 傳하는 것을 說教者의 任務로 여겼고¹⁷⁾ 주일 아침에는 新約을, 주일 오후에는 시편을, 주일에는 舊約을 講解하였으나 결코 어떤 엄격한 規則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칼빈은 주장하기를 說教者가 聖經의 해석만을 하고 聖徒의 贊화를 치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說教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듣는 자들에게 感化를 끼치고 悔改를 위해서는 먼저 說教을 듣는 자들의 형편과 성질을 잘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語法과 比喩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칼빈의 說教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 받았거나 즐거움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그의 說教에 딱 冷淡하고 무관심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를 거리낌 없이 非難하고 公開的으로 敵意를 품었다. 칼빈은 청중에 대해서는 딱 엄격하였다. 그는 어린이들의 울음 소리는 추위

15) 칼빈이 說教한 교회는 Se Pierre, La Magdaline, St. Servais 등 세 교회이다.

16) 부활절부터 10월까지 6—7시, 겨울에는 7—8시에 모였다.

17) G. Johnson, *op. cit.*, p. 249.

18) 김희보, “복회자로서의 칼빈” 神學指南, 제29권, 제1호(장로신학교 1962), p. 69.

를 散漫케 한다고 적당했으며, 어떤 사람들이 敎會에 들어오지 않고 문밖을 통과하는 것을 보지 말라지 않게 생각했으며, 들어온 사람이든 할지라도 잠에 빠져 조는 사람과, 깨어 있다 해도 설교를 듣는 일에 集中하지 않는 자들을 嚴히 責備하였다. 그러나 結果는 그가 바라는대로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낙심하였다.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설교에 대한 感激이 적어지자 그는 하나님이 허락만 한다면 죽고 싶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끝내 落心치 않고 기쁨과 신병의 苦痛을 당해 가면서 說教에 專力을 다하였다. 이제 우리는 요한 칼빈이 說教에 대한 그의 立場과 그의 說教에 비추어진 사실을 詳究해 보기로 하자.

① 칼빈은 자기가 행하는 說教의 일이 聖職者의 處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말씀¹⁹⁾의 사역자”(minister of the Word) 또는 “말씀의 종”(servant of the Word)으로 생각하였다. 칼빈은 말하기를 “聖職者는 髣髴러운 이름이다. 그러나 敎皇을 信奉하는 聖職者가 되느니보다 絞首臺에 매달리는 편이 낫다²⁰⁾” 하였다. 그러나 그는 自身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교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신을 교인의 주인으로 생각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이 우선 칼빈 선생의 說教者로서의 자세였다. 또 하나 칼빈 선생의 說教者로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주께서 내가 이 壇 위에서 敎人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자신에게 부종케 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羊과 마찬가지로 양떼 중의 한 마리입니다²¹⁾” 라고 썼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다고 생각되는 것, 즉 福音을 증거하였지 會衆의 罪惡스런 기쁨을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眞實된 信仰人에 對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알지 못하는 무엇을 듣기 위하여 설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行해야 할 것을 刺

19) G. Johnson, *op. cit.*, p. 249.

20) G. Johnson, *loc. cit.*, p. 249. *Corpus Reformatorum* 82 : 412 또한 *Het Gepredikte woord, preeken van Johannes Calvin*, vertaald door J. Douma en W.H.V.D. Vegt의 Vol. I을 참고할 것.

21) *Corpus Reformatorum* 81 : 219. 이 자르는 필자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George Johnson의 *Calvinism and Preaching*에서 인용된 것과 요한 칼빈의 설교집(화란역), *Het Gepredikte woord, preeken van Johannes Calvin*에서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단 표기는 원전대로 *Corpus Reformatorum*으로 한다.

戟받기 위하여 온다²²⁾”고 하였다. 이러한 確信 아래에서 그는 談博한 歷史知識을 과시하거나, 說教에 지나치게 어떤 技巧을 부리지 아니하였다. 칼빈은 그의 說教時에 聖經에서 發見되는 어떤 人物을 英雄으로 위상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聖經은 의심할 바 없는 眞理이지만 모세가 위대한 雄辯家였다거나 이사야가 위대한 人物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²³⁾” 말했다. 칼빈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人間은 聖靈님의 道具임을 말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說教者의 任務가 說教를 인간의 어떤 嗜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믿었다.²⁴⁾

②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칼빈은 聖經 속에서 發見했다. 이 사실 때문에 성경은 그에게 있어서 다른 기록문서처럼 여러가지 類의 集合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a living will)의 기관(organ)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說教에서 聖經은 人間의 靈魂 깊히 파고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說教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설교해야 하며 (We preach as if God were here present), 書記가 임금 앞에서 말하듯 하며, 天地의 大權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각해야 한다.”²⁵⁾ 따라서 說教者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다.²⁶⁾ 그런데 위의 인용문 중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의 “마치……처럼”(as if)란 표현은 칼빈에게 있어서는 허구나 기정의 뜻이 아니고 事實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世上을 救援키 위하여 그들과 和議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人間이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림보다도 說教로써 그들을 찾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確信을 가지고 칼빈은 說教 속에 그것을 청중에게 適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는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어린아의 말을 사용하신다.”²⁷⁾ 이와같이 說教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키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

22) *Corpus Reformatorum* (이하 C.R.로 표기) *ibid.*, 79 : 783.

23) C.R. *ibid.*, 82 : 286.

24) G. Johnson, *op. cit.*, p. 250.

25) C.R. *op. cit.*, 82 : 146

26) C.R. *ibid.*, 81 : 7

27) G. Johnson, *op. cit.*, p. 251.

신 方法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하였다. 여기에서 效果的인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③ 說教를 하면서 칼빈은 우선 聽衆들의 意志에 호소했다. 그러나 단순한 知識만을 전한다면 하나의 冷淡한 理論 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價値를 알려주거나 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忠告하는 哲學者로 存在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는 것?”²⁸⁾이었다. 칼빈이 說教할 때에 첫째 悔改에 強調점을 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이 效果的인 說教의 秘訣인 것이다.

④ 說教者의 任務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이 말씀은 聖經이며, 說教의 目的은 知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悔改에 있다는 事實을 강조하면서도 칼빈은 原語로 聖經을 강해한 學者였으며 열심있고 근면한 學者였다. 여기에 칼빈의 聖經研究의 重要한 태도가 있는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說教할 자료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을 통하여 教會에 전파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다. 그는 솔직히 자신이 理解할 수 없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말했고, 언제나 그의 聽衆들에게 성경을 읽을 것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個人的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알아보도록 勸勉하였다.²⁹⁾ 그는 또한 설교를 듣는 청중에 대해서 깊이 研究하였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 저들을 理解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例話를 使用하기도 하였다. 칼빈은 效果的인 說教를 위해서 日常用語를 使用했고 흔히 아는 俗談도 경멸하지는 않았으며 때로는 유모어도 섞었다.³⁰⁾ 反面 그는 언제나 禱告의 慰勞를 사용하는데 能熟하였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그의 時代에 대한 研究도 깊이 하였다. 그래서 그 時事的

28) C.R. *op. cit.*, 77 : 614.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人生을 구원하신다. “설교 없이는 구원이 없다”(Zonder de prediking geen heil) J. Douma en W.H. V.D. *Het Gepredikte woord, precken Van Johannes Calvins*의 Inleiding, p.3 참고, 또한 *Institutes* IV. 16, 17, IV. 1.5, II. 11, 11 등을 참고할 것.

29) C.R. *ibid.*, 74 : 480.

30) C.R. *ibid.*, 74 : 767. 그런데 Harnack은 요한 칼빈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결코 웃음이 없는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자”(We now come to a man who never smiled)라고 서두를 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 칼빈에 대한 편견이었다. G. Johnson, *op. cit.*, p.252 참고.

인 문제에도 대담히 언급하였다. 그는 심지어 마을의 風俗과 老人들의 嗜好까지도 간섭이 알고 있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더구나 칼빈은 주로 講解 說教를 하였는데 聖經解釋 뿐만 아니고 靈的 感化를 동시에 중요시하였다. 성경 해석만 하고 영적 감화가 없다면 그 설교는 죽은 것이라고 하였다. 칼빈의 說教의 特徵은 過激한 말을 가끔 사용한 일인데, 그 이유는 당시의 歷史的 情形에서 온 것이다. 당시의 雷語가 素朴하고 강직한 때문도 있으나 그보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新敎에 퍼부은 惡談이 그 原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榮光을 쫓는 자에게 극력 반대하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³¹⁾ 그의 과격한 말은 주로 로마 카톨릭과 재세례파(Anabaptism)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칼빈主義 입장에 선 說教理論 중에 두 가지 꼭 알아야 할 사실을 말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첫째로 예정론(Predetermination)과 聖經에 대한 聖靈의 證據이다. 예정론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에 거슬리게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無視하거나 全的으로 拒否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異敎徒의 運命論과 同一視하고 예정론에 대한 聖經 啓示의 領域을 벗어나 神人同型 思想에 빠지려는 傾向 때문이다. A. Viguié란 사람은 말하기를 만약 예정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16世紀의 敬虔이나 勇氣나 英雄心을 理解할 수가 없다.³²⁾ 그들은 하나님의 臨在을 느끼며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원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引導하고 그들에게 말과 行動을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친구며 그의 막한 백성이었다. 여기서 그들의 靈魂의 기쁜 讚揚이 흘러나왔다. 하나님은 그들 안대 계시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들을 통해 일을 하도록 感動시킨다. 16世紀에는 罪로부터 救援받은 罪人과 全能하신 하나님 사이에 강한 聯合의 表現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서 어떤 사람은 예정론을 차가운 運命論(Fatalism)으로 되었다”³³⁾고 하였다. 그의 말은 옳은 것이 아니다.

31) 이 근삼, 칼빈, 칼빈주의(고신대 출판부 1976), pp. 39-40을 참고할 것. Johannes Calvin *op. cit.*, *Het Gepredikte woord X. De Stijl Van de Prediking*, pp. 38-43을 참고할 것.

32) G. Johnson, *op. cit.*, p.252 “One will never understand the piety, Valour heroism of the sixteenth century, unless one remembers its view of predetermination” 본래는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Tom 31, 1882, p. 506f.

33) *Ibid.*

에나하면 “차거운 운명론”은 예정론에서 발견된 結果가 아니다. 또 16世紀의 칼빈主義者들의 經驗의인 예정은 어떤 神秘的인 確證이 아니라, 聖經의 證據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정론은 說敎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世上 어디서나 그의 擇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들의 生命의 음성을 기다린다. 이 부름은 說敎를 通하여 그들에게 傳播된다. 그러므로 說敎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手段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사랑과 選擇된 사람들의 받고자 하는 사랑과 連結된 것이다.³⁴⁾ 이 사랑은 永遠하다. 이 사실이 16世紀의 칼빈主義者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崇高한 행위가 바로 說敎이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信仰이 그의 說敎를 강열하고 불꽃이 튀도록 만들었다. 처음 칼빈주의자들은, 설교자가 그의 聽衆들을 대할 때에, 약속에 따라 說敎者 측에서는 말씀과 청중을 이해하는 恩惠를, 청중 측에서는 말씀과 說敎者를 이해하는 恩惠를 주시는 三位이신 聖靈님이 함께하심을 의미한다.³⁵⁾ 說敎는 하나님의 말씀인 聖經을 진지하게 研究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전해야 한다. 듣는 귀나 회중의 마음은 아무런 努力이나 기도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16세기 칼빈주의자들은 설교하였다. 칼빈은 그의 聖經觀에 있어서 聖靈의 役事를 항상 강조한다. 聖經은 聖靈의 感動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우리에게 人格的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說敎者의 임무는 聖靈께서 그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게 하는데 있으므로 技巧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說敎者는 說敎를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자신이 聖靈의 道具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의 說敎 가운데는 聖經의 어느 부분을 해석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聖經에서 그리스도를 發見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聖經的인 說敎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이다. 說敎란 단순한 敎理 전달이나 倫理的 敎訓의 전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전달의 방법에는 說敎의 方法과 聖禮典이 있는데 설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야

34) G. Johnson, *op. cit.*, p. 253.

35) Semper Huic Verbo, confessed the Calvinist of the first age, adest praesens Spiritus Sanctus.

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칼빈主義的 說敎인지는 이미 말한 Andreas Gerhard의 說敎理論과 John Calvin의 설교와 그의 설교 이론에서 이미 드러났다. 어느 순간에든지 說敎者 자신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에게 나타내져야 하는 것이다. 人間을 讚揚하는 것과 설교자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참된 설교가 아니다. 위에서 생각해 본 칼빈主義 說敎觀을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하버갈(Havergal)의 詩 한편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주여! 내가 무엇을 말할지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음성이 내 안에서 산 메아리가 되어
길 잃고 외로운 주의 자녀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양들을 찾게 하옵소서
당신의 방법을 따라서……

오! 주님, 내가 무엇을 가르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귀하고 값진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의 탈에 날개를 달아서
저로써 많은 영혼의 깊은 곳에 이르도록 나를 가르치소서.³⁶⁾

<<말>>

<총회신학대학 교수>

36) G. Johnson, *op. cit.*, p. 244.